

익산시, 소규모 농가도 걱정 없이 창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농가 창업 3단계 지원·해썬 인증 관리 등... 관내 농가 소득 창출 일조

‘익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소규모 농가 소득 창출에 든든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동률이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2019년 11월 문을 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지역 농가가 수확한 농산물을 2차로 가공해, 창업을 통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익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지역 농가가 수확한 농산물을 2차로 가공해, 창업을 통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작년부터 추출, 농축, 건조, 분쇄 등 56종, 74점의 상품 생산이 가능한 가공설비를 갖추고 있다. 시는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생산되는 가공식품의 품질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실제 센터는 7개 유형의 해썬(HACCP) 인증 관리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 과채 주스와 과채 가공품, 액상차, 잼, 참기름, 들기름, 빵류 등에 대한 식품 위생 관리를 통해 원활한 유통 환경을 만들고 있다.

특히 전체 제품 생산에 지역 농산물 50% 이상을 사용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일조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가공 창업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시는 △창업 교육 △창업 실행 △자립 정착 3단계로 나눠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창업 교육’은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영업 절차나 상품 기획에 대해 배워보고,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단계로 지난해까지 17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30명 정원의 농업인대학 농

산물가공반을 통해 80시간(20회)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농산물 가공이론과 실습, 창업 절차, 세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마케팅을 배워 창업에 대한 이해도와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교육을 수료한 후 유통·전문판매업 신고한 농업인은 1:1 컨설팅을 통해 가공제품 선정과 기획, 제조 방법 결정, 시제품 생산 지원을 받아 상품화 준비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연간 90건 이상의 상담이 진행된다.

‘창업 실행 단계’는 가공제품 상품화와 품질관리, 판촉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다.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잼, 음료류, 기름, 빵류 등)은 로컬푸드 8개소와 하나로마트, 익산물, 학교급식, 농부 시장 마르세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들은 올해로 3년 차 서울 국제식품 산업대전 박

람회에 참가하며 국내외 식품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가공센터 이용 농가의 상품화와 판로 확장을 위해 시는 행정 사항 지도와 현장 대응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다.

‘자립·정착 단계’는 창업보육 농가의 자립을 유도한다. 현재까지 1단계와 2단계를 거쳐 가공센터에서 30농가 53품목(사과즙, ABC주스, 딸기잼, 참기름, 들기름, 볶음 땅콩, 보리빵, 와송증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현재 2개소가 자립해 개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과수 화상병으로 과수원 폐원 후 고구마 농사를 시작하던 한 업체는 창업 교육을 통해 가공 품목을 빵으로 결정하고 가공센터에서 제품 생산과 판로 확장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2년 자립해 연간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시민 섬기며·위대한 도시 만들기 최선”

강영석 익산부시장, 취임 후 첫 기자실 방문·시정 포부 밝혀

강영석 신임 익산부시장은 3일 익산 시청 기자실을 찾아 “익산이 위대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강영석 부시장은 익산시 출입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 시민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부시장으로서 동료들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도록 응원하고 격려를 함께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부시장은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전북의 감염병 확산 방지와 관리 체계 전반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강 부시장은 당시를 떠올리며 익산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라준 덕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또 익산이 주력하는 바이오산업과 관련해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부시장은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로 삼아야 하는 산업”이라며 “특히 의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제가 챙기기에 유리



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강 부시장은 지난 1일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지난 2일에는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지난해 여름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을 직접 방문해 재해 예방을 위한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한편 강 부시장은 김제 출신으로 전주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2004년 김제시 보건소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2016년 전북도로 자리를 옮겨 역학조사관과 보건의료과장, 복지여성보건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직무성과평가 결과 6개 우수부서 시상식

익산시가 3일 상반기 BSC 직무성과평가 결과 6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우수부서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시정성과 창출을 견인하고 전문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6개 부서는 최우수 주택과·송학동, 우수 산림과·인화동, 정려 복지정책과·운동면이다.

직무성과평가는 총 83개 부서를 대상으로 461개 성과지표 달성도와 대외수상,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실적 등에 대해 자체평가단 및 외부 전문가의 평가로 진행됐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탁월한 성과는 물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지표 개발에 힘쓰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가 확립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고품질 쌀 생산 위해 ‘병해충과 전면전’

익산시, 벼·논농 병해충 방제 사업에 16억2000만원 투입

익산시가 고품질 쌀과 논공을 생산하기 위해 병해충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16억2000만원을 투입해 벼·논공을 재배하는 1만여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종합방제 약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체 생산 면적에 △사전방제 △종합방제로 나눠 강도 높은 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벼 병해충 사전방제에 더해 살균·살충제를 지원하는 벼 병해충 종합방제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사업 대상 농가까지 확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사업은 출수기 전·후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을 종합적으로 예방·방제할 수 있는 살균·살충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벼와 논공 생육 기간(7~9)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병과 해충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다.

시는 방제 사업을 통해 고령화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돕고, 병해충 확산 방지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인구의 날 기념 ‘기움없음 페스티벌’ 개최

군산시가 제13회 인구의 날을 맞아 6일 군산대건건축관에서 ‘기움없음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7월 11일 세계인구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 및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기움없음 페스티벌 행사는 어린이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인구정책 유공자 시상 △아빠 육아 사진 공모전 시상 △가족감동토크콘서트 △육아하는 아빠 골든벨 △어린이 골든벨 순으로 진행된다.

본 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흥겨운 부대행사로 △물총놀이 △물풍선놀이 등이 다양히 준비되어 시민들에게 즐거운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이번 골든벨 추진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아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서 골든벨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그 외 다른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또는 인구대응담당관(063-454-2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위해 ‘맞손’

군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군장대-전북인력개발원-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업무협약

군산시는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중회의실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직업능력 향상과 정착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산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기

획·운영 △산업단지 내 한국어 교육과정을 신설해 언어장벽 해소와 문화 이해를 통한 사회통합 지원 △전기공사, 지게차 등 현장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화위과정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 후 각 기관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밀접한 협력을 유지해 외국인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군산시도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추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이차전지 업체 안전점검 완료

이차전지 업체 5개소 대상, 관계기관과 합동 안전점검

익산시가 위험요인의 조기 발굴 및 해소를 통해 안전한 산업 환경 만들기 위해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경기도 화성시 일차 전지 제조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지역 내 이차전지 업체 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익산소방서 등 관계기관

과 함께하는 합동 점검으로 진행했다. 현재 생산공장을 가동 중인 이차전지 기업을 방문해 화재 발생 소지가 있는 시설물과 자체 안전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과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하고 이차전지 화재 발생 시 유의점 및 대응 방안 등을 전달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